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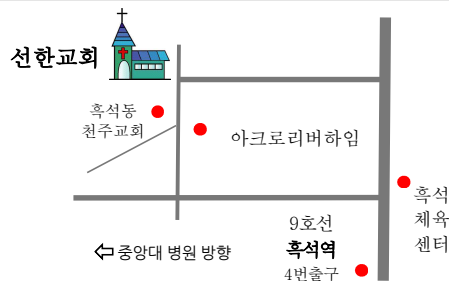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1부 주일 오전	9:30	유 아 부	오전 10:00
2부 주일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3부(청년)주일오후	1:00	요 셉 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초 등 부	오전 10:00
(5째주 셀가족모임)		바 울 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소 년 부	오전 11:00
금 요 기도 회	금요일 저녁 8:30	루 디 아 회	오후 1: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마 리 아 회	오후 2: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드 보 라 회	오후 2:00
		에 스 더 회	오후 2:00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 임 목 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 사	오 인 숙, 한 배 선
	교육 목 사 정 용 준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협력전도사 오 호 남		주안예교회 (이경필 목사)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해 외 협력 선교 사	이금춘, 조나단, 김만조
	박 회 태, 유 신 웅		
	조 윤 익		
장 로	이 태 수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박 영 근, 윤 호 중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편 도 선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스이용(동작 01, 10, 21)

표 어 너희는 강하게 하라 (대하 15:7)
Be strong and do not give up

실 천 사 항 믿음의 선포 제자의 삶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2)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 : 임춘배 목사
	3부 오후 1시		인도 : 정용준 목사
	1, 2부	3부 (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28장 (통일찬송가 28장)		
교 독 문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찬 양 과 경 배	516장 (통일찬송가 265장)		
기 도	박영근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씀 봉 독	디모데후서 4장 1~5절	창 2:18,24	
설 교	너는 네 직무를 다하라 (임춘배 목사)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입니다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2부예배 찬양팀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청년부 회장	
파 송 의 노 래	하나님의 부르심	삶의 예배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일 오 후	오후 3:30	사회 :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기 도	다 함께	
성 경 봉 독	요한계시록 20장 1~10절	
말 씀	세 번째 환상: 붉은 용의 멸망 (임춘배 목사)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나를 미워하는 자가 생겼을 때 (시 41편 1~13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2) 오늘 점심 봉사 부서는 드보라회입니다. 3)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4) 주차 안내: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주차권을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 교 대 청 회 소	4월 1일(토)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3. 조 이 앤 드 샵	일시: 4월 8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대상: 교회 모든 찬양팀, 찬양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장소: 지하 2층 청소년부실	
4. 김 만 조 선 교 품 후 사 원	1) 한국어 수업: 자모음 교구, 낱말 카드, 교실 데코레이션, 한글노트, 세종 한국어 1~8권 세트 2) 음악 도구: 리코더, 멜로디언, 오카리나, 트라이앵글 등 3) 태권도 용품: 도복, 미트 4) 수학 도구: 수학 교구 ※ 4월 2일(주일)까지	
5. 떡 제 공	김소영 김영주 성도 가정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	---

찬송 :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428장(통 488)

본문 : 요한복음 8장 12~20절

말씀 : 미국 기업가인 앤드루 카네기(1835~1919)는 “인생의 3분의 1은 배움, 3분의 1은 돈 버는 일, 3분의 1은 가치 있는 대의에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배움의 시작은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지 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을 교육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은 자신의 학업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반면 메타인지가 낮은 학생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학습 방향과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했지만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이해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피상적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인지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실상 무지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진리의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 기간에 밤마다 예루살렘 성전 뜰에 거대한 촛불들을 켜놓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참된 빛이 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광야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도 어디로 가야 하는 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자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할 때 우리는 빛을 볼 수 있고 이 세상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 발에 등ियो 우리 길에 빛이 되십니다.(시 119:105)

제 목

너는 네 직무를 다하라 (딤후 4:1~5)

서 론 우리 모두는 주님께 받은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1. 그리스도인의 직무

(1) 심판 날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1절)

(2) 우리의 직무

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2절)

②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5절)

(3) 사람들의 반응

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3절)

본 론

②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4절)

(4) 우리들의 반응

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씀 (2절)

②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 (2절)

③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으며 직무를 다함 (5절)

2. 교훈

(1)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내용은 무엇인가?

(2)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무엇인가?

(3)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결 론 전도가 어려운 때 일지라도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박영근 장로	편도선 장로
2부 예배 헌금	방성자 집사	백영미 집사
오후 예배 기도	장혜선 권사	방성자 집사
주 방 봉 사	드보라회	루디아회

매일 Q.T.		반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판결	날짜 : 3월 27일
찬양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본문	사무엘상 28:15~225		
말씀요약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으며 사울의 나라를 떼어 다윗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손에 넘기신다고 합니다. 사울이 두려움과 허기짐으로 기진해 땅에 엎드려지자 여인이 강권해 음식을 먹게 합니다.		
묵상질문 1	전쟁의 패배와 사울의 죽음 예언 28:15~19 사울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나요? 어떨 때 나는 죄의 결과가 무섭다는 것을 깨닫나요?		
묵상질문 2	두려움에 엎드려진 사울 28:20~25 심판 예언을 들은 사울의 반응과 처지는 어떠했나요? 사울처럼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 내가 지금 돌이킬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사무엘상 28장 15절 하나님이 '함께하시네' 삶과 '떠난'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블레셋이 침공하자 사울은 사무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더는 그분의 뜻을 알려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버리고 그분의 뜻에 불순종한 삶에는 함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말씀을 가까이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복된 장소가 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 힘으로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음을 알기에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제 삶을 자세히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해주소서.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불순종에 임하는 심판”
찬양과 기도	너희 죄 흉악하나 (새 255, Ab→G) 주님과 같이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이솜 우화에 나오는 ‘소금을 나르는 나귀’ 이야기입니다. 소금을 나르던 나귀가 하루는 시냇가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등에 지고 가던 소금이 시냇물에 녹아 버리자 나귀는 가볍게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시냇가에서 넘어지면 짐이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귀는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도, 그다음에도 시냇물이 보이면 넘어지길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나귀의 등짐은 가벼워졌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은 나귀의 버릇을 고쳐 주기로 마음먹고, 나귀 등에 소금 대신 솜을 실었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귀는 시냇가에서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달랐습니다. 시냇물을 만날 때마다 계속 넘어졌지만 짐은 점점 무거워지기만 했습니다. 솜이 물을 머금어 무거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천근만근 무거워진 짐을 지고 나귀는 힘들게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나귀는 더는 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 듣습니다. 그중에는 분명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지혜와 방법이 오히려 더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꾀가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솜 우화 속 나귀처럼 잘못된 꾀로 오히려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는지 나눠 보세요.	
말씀 나누기	사무엘상 28:15~25	
묵상포인트	하나님이 사울에게 침묵하신 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행했습니다. 심판 선언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 고꾸라지는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최후를 잘 보여 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순간을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소망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사무엘의 영에게 사울은 무엇을 물었나요?(15절)	
적용하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나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기	욕망과 죄를 끊어 내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소망과 평안을 누리며 이를 널리 전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생의 마지막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	날짜 : 3월 31일
찬양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 계셔		
본문	사무엘상 31:1~13		
말씀요약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고, 도망하는 사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사울은 패전하고 중상을 입자 스스로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집니다. 블레셋이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사울의 시체를 벤산 성벽에 못 박습니다.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장사합니다.		
목상질문 1	사울과 세 아들의 죽음 31:1~6 사울과 세 아들이 한날에 모두 비참하게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하길 원하나요?		
목상질문 2	장례를 치르는 아베스 사람들 31:7~13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러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선(善)'으로 보답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한절묵상	사무엘상 31장 6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순식간에 몰락합니다. 사울과 세 아들, 사울의 무기를 든 자와 사울의 모든 사람이 한날에 함께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울 집안을 이스라엘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는 항상 열려 있는 문이 아닙니다. 닫히면 세상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있는 한, 돌이킴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회개할 시기는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제 악행을 기억하시고 악함대로 갚으실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움으로 행하게 하소서. 생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제 선행을 기억해 주심을 믿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소서.		

매일 Q.T.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날짜 : 3월 28일
찬양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본문	사무엘상 29:1~11		
말씀요약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나아가자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보고 노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변호하지만, 방백들은 다윗이 배신하고 사울과 화합할지도 모른다면 그를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에 다윗은 항의하지만, 다음 날 아기스의 말대로 새벽에 자기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돌아갑니다.		
목상질문 1	다윗의 참전을 반대한 블레셋 방백들 29:1~5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목상질문 2	위기를 모면한 다윗 29:6~11 다윗은 동족과 싸워야 할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났나요? 내 삶과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사무엘상 29장 6~7절 하나님의 섭리는 지혜롭고 완전합니다. 블레셋에 망명해 있는 다윗이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이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블레셋과 한편에 서기를 거부하면, 블레셋은 망명한 다윗의 의도를 의심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를 사용하셔서 다윗의 참전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십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롭고 완전한 섭리 안에서 평안과 안전을 경험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길에서 맞닥뜨린 위기에도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하시며 저를 살려 주시는 분은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매일 Q.T.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리더	날짜 : 3월 29일
찬양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본문	사무엘상 30:1~15		
말씀요약	다윗 일행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아말렉이 그곳을 불사르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끌고 갔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쫓아가는 길에 다윗은 애굽 소년을 만나 음식을 주고 자기 일행을 아말렉 군대로 인도하게 합니다.		
묵상질문 1	위기에서 기도하는 다윗 30:1~8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요?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상은 누구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 30:9~15 다윗은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었나요? 하나님이 나의 작은 선행을 큰 도움으로 바꾸어 주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사무엘상 30장 7~8절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가족을 아말렉의 포로로 잃은 다윗의 부하들이 원망하며 다윗을 돌로 치려 하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내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빠른 임기응변보다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른길의 첫걸음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간신히 위기에서 빠져나온 후 더 큰 위기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저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도움을 간구할 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위기 한가운데서 주님이 보내 주신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하소서.		

매일 Q.T.		은혜로 얻은 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삶	날짜 : 3월 30일
찬양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본문	사무엘상 30:16~31		
말씀요약	다윗과 400명은 아말렉을 쳐서 빼앗긴 것을 다 찾아옵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피곤해서 브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에게 전리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아말렉을 자신들 손에 넘기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모두의 분깃이 동일하다며 똑같이 배분합니다.		
묵상질문 1	모든 것을 되찾은 다윗 30:16~20 다윗이 적은 수의 군사로 아말렉을 기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대 밖의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전리품을 나누는 원칙 30:21~31 다윗이 전리품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수고의 결과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절묵상	사무엘상 30장 24~25절 하나님 나라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아니라 ‘더불어’사는 나라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군대는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자, 분배로 인한 갈등을 겪습니다. 이에 다윗은 모든 소유를 모든 이에게 똑같이 분배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신 전쟁이기에 차등을 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는 공평과 공정은 리더십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승리와 패배 사이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의 굴곡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소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기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되 승리의 기쁨에 도취해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전리품은 사람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소서.		